

일학습 병행제와 학습근로자 보호

김주섭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돌이켜 보면, 국내에서 인력개발 정책을 담당하는 정책담당자와 관련 분야 연구자가 2000년대 초반 이후부터 최근까지 줄곧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설정해 온 문제 중 하나는 '일과 학습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중반 이후 대학 설립의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대학진학률이 급격히 높아져 2000년대 후반 들어 80%가 넘는 대학진학률을 기록하였던 반면, 경제는 중·저성장에 머무르는 상태가 지속되어옴에 따라 인력수급상의 양적·질적 불일치가 심화되어 왔다. 박근혜정부 들어와 '직업교육훈련체제 혁신'이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설정된 것도 과거 10여 년 이상 지속되어 온 '일과 학습의 괴리' 현상, 이로 인한 인력수급상의 불일치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경우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이 매우 어렵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의 '직업교육훈련체제 혁신' 과제 중에서도 특히 강조되고 있는 과제는 '일학습 병행제 도입 및 확산' 정책이다. 일학습 병행제는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형 인재를 기르기 위해 기업이 취업을 원하는 청년 등을 근로자(이하 '학습근로자'로 한다)로 채용하여 학교 등 교육기관과 함께 일터에서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이렇게 교육훈련을 마친 자의 역량을 국가(또는 해당 산업계)가 평가하여 자격(또는 연계학교 학력) 등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기업 스스로가 학습근로자에게 교육훈련을 제공함으로써 일과 학습의 괴리를 원천적으로

해소하는 것이 이 제도의 도입 취지라고 볼 수 있다.

도제제도의 도입 및 확산이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이유는, 청년층 고용문제 해결에 있어서 도제제도의 효과가 이미 검증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독일의 경우 지난 2005년 16%에 달하던 청년실업률이 지난해에는 7.9%로 절반 이하로 떨어졌는데, 도제제도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주요 20개국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유럽공동체가 공동 주관한 ‘노동시장에서 청년의 보다 나은 출발을 위한 양질의 도제제도’ 컨퍼런스에서 각국의 다양한 도제제도가 소개되는 등 많은 국가가 도제제도의 확산을 통한 청년고용 확대에 힘쓰고 있다.

그러나 도제제도의 국내 도입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전과제를 제기하기도 한다. 도제제도는, 본래 제도의 취지에 따르면 기업의 자발성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충분한 자체 재원조달에서부터 양질의 훈련프로그램 운영 및 우수한 도제훈련 트레이너 확보 등은 도제제도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기업이 자체적으로 인력개발을 해온 경험이 적을 뿐 아니라, 도제제도를 확산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인 매개역할을 담당할 산업계 주도의 추진체계 역시 잘 발달되어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한국형 도제제도인 일학습 병행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제도 도입 단계에서부터 산업계 주도의 자체 생태계 조성 단계까지 정부의 주도면밀한 정책추진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도제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또 다른 중요한 문제는 직업훈련생의 보호에 관한 점이다. 기업에서 운영되는 도제제도는 자칫 값싼 노동력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도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주요 국가에서는 직업훈련생과 기업과의 세세한 계약관계, 그리고 훈련프로그램의 질 관리에 이르기까지의 많은 부분을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과거 ‘실업계 고등학교 2+1체제’가 실패한 주요한 원인 중 하나로 기업의 현장실습생 관리 부실이 지적되어 왔으며 청년층 인턴제 운영에 있어서도 기업의 관리역량 미흡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일학습 병행제 활용기업의 학습근로자 관리의 문제는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핵심적 사안인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는 이번에 일학습 병행제를 운영함에 있어서 학습근로자 보호와 프로그램 질 관리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작업과 아울러 도제제도가 선진국에서는 어떠한 제도적 장치를 통해 실현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KLI**